

전주시, 미래유산 프로젝트 모색

전문가 등 70여명 포럼 개념·범위·가치 등 정립 시민 공감대 형성할 계획

전주시가 시민들과 함께 지켜가야 할 미래유산에 대한 개념 및 가치 정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주시는 11일 전주시혁신센터 1층 다목적홀에서 관련 전문가 및 유관기관 관계자, 행정 T/F팀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미래유산 제2차 포럼'을 개최했다.

'전주 미래유산 프로젝트'는 전주시가 시민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기억의 장소와 오래되고 넓었지만 가치 있는 모든 것들을 미래유산으로 재창조하는 사업이다.

'문화재 보존과 미래유산'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함한희 전북대학교 교수와 최우중 전주시 전통문화과 주무관의 주제발표와 함께 정길전 주문화재단 사무국장, 김용구 문화재청 창조행정담당실 사무관, 이재필 국립무형유산원 조사연구기록과장, 차상민 전주마을조사단 연구원이 참여해 토론회가 진행됐다.

함한희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미래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전에 용어의 개념을 먼저 확정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미래유산은 지역의 고유한 문화정체성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미래적 가치가 있는 유산을 남기는 사람, 만드는 사람, 유무형문화재의 주인공 보존과 활용 주체가 모두 사람이기 때문에 미래유산의 주인공



전주시는 11일 전주시혁신센터 1층 다목적홀(강당)에서 관련 전문가 및 유관기관 관계자, 행정 T/F팀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미래유산 제2차 포럼'을 개최했다.

도 결국 사람"이라며 "아직 잘 드러나지 않은 무형문화유산을 가진 사람들을 발굴해 이들의 가치를 미래로 남기는 일이 우선적으로 미래유산 프로젝트에서 시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주시 문화재 관리현황과 미래유산 사업 추진방향'을 주제로 발표

에 나선 최우중 주무관은 "미래유산 사업은 관 주도에서 민간주도로 가야 하고, 미래유산의 문화적 가치의 특성에 맞게 보전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유

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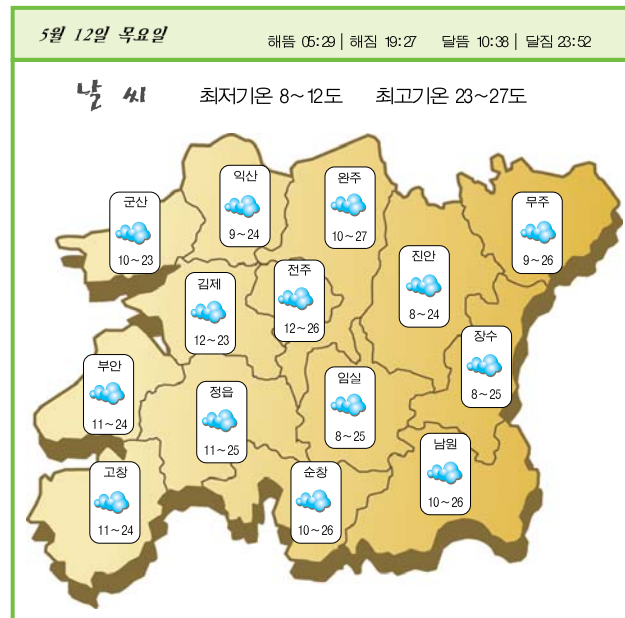
또한 그는 "미래유산의 발굴부터 선정까지 전 과정을 시민참여에 의해 추진해야 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유산 보전 종합관리계획을 5월 중으로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4일 제2차 포럼을 시작으로 다음달 29일까지 총 7차례에 걸친 '전주 미래유산 포럼'을 진행, 지역 문화재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미래유산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미래유산의 개념과 범위를 정립

하고 시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전주 미래유산 포럼을 통해 미래유산의 개념과 범위, 가치 등을 정립하고, 담론 및 공감대를 형성, 전주 미래유산 프로젝트의 추진방향을 구체화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미래유산 프로젝트는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사업인 만큼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대표 한식과 프랑스 와인 한자리에

'봄, 프랑스 와인 한식을 탐하다'

전주를 대표하는 한식과 프랑스를 대표하는 식문화인 와인을 한 자리에 맛볼 수 있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전주시는 11일 국제한식조리학교 조리실용에서 식음료 전문가 등 30여명을 대상으로 한-불 수교 13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전주 프랑스 위크'의 세 번째 프로그램인 '봄, 프랑스 와인 한식을 탐하다'를 개최했다.

국제한식조리학교와 공동으로 진행한 이날 행사는 G20 정상회담 영부인 오찬총괄을 담당하고 웨라톤 그랜드 위커희호텔 한식조리장을 역임한 이재욱 교수와 장 폴 보레즈(와인소믈리에&와인딜러)가 참여,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다양한 종류의 와인과 이에 맞는 한식의 향연을 준비했다.

특히 꿀과 배, 시트러스 향을 느낄 수 있는 투렌 '라르렌 데 보봉'에는 오이신과 두부신 생선잔이, 체리와 카시스 향신료 등의 과일 맛이 강한 '블로 데 랑그르 모노폴'에는 한우등심구이가 곁들여지는 등 프랑스 와인 5가지와 그에 맞는 한식이 선보였다.

와인뿐만 아니라 프랑스음식과 한식에도 남다른 애착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장 폴 보레즈 소믈리에에 이날 '이런 와인 행사를 통해 프랑스의 와인이 옛부터 물과 공기가 좋아 음식이 발달한 전주의 한식과 어울린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며 전주의 맛에 감탄했다. '전주 프랑스 위크' 행사는 오늘 CMBV 내한공연과 13일 프랑스동화여행, 프랑스삼성교육 강연을 앞 두고 있다.

/김영재 기자

전북대학교 '가금류 질병 방제 연구센터' 출범

'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 지원사업' 선정 7년간 정부지원금 등 154억여 원 투입

조류인플루엔자 등 질병 정복 연구·우수 인재양성

전북대학교가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금류 질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형 연구센터를 본격 가동한다.

11일 전북대에 따르면 익산 특성화 캠퍼스에서 '가금류질병방제연구센터' 출범식을 이날 갖고 가금류 질병 정복을 위한 연구와 우수 인재양성에 돌입했다.

가금류질병방제연구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ARC) 지원사업'에 선정돼 향후 7년 간 정부 지원금 등 154억여 원

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 프로젝트다.

이날 출범식에는 전북대 아남호 총장과 김남수 수의대학장, 이상길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장 이기욱 대한수의사회 부회장 등 관련 기관 기업, 학회 주요 관계자들이 함께 해 연구센터 출범을 축하했다.

가금류질병방제센터는 앞으로 가금류에서 발생하는 질병에 대한 체계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미래 가금류 질병 방제 산업을 선도할 우수 전문 인력 육성에 나선다.

특히 수의대 인근에 위치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인공공통전염병연구소와 긴밀하게 연계할 예정이어서 연구와 우수인재 양성에 큰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전북대를 필두로 5개 대학과 9개 산업체 130여 명의 연구원이 참여해 가금류질병 방제를 위한 신약개발 등을 수행할 핵심기술팀과 전문가 양성교육을 담당할 인력 양성팀으로 나뉘어 체계적으로 연구 사업이 수행된다.

센터는 가금류산업 현장 애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금류질병에 대한 감시·역학체계를 종합적으로 구축해 현장에 적용 지속성장이 가능한 산업

기반을 확보하고 질병 예방을 위한 백신과 동물약품, 친환경 소독제 등 신약개발에도 나서 산업화 기반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최신 진단기술 및 치료기술부터 방역활동 분야까지 이론과 실무 역량을 겸비한 우수 전문가양성에도 역량을 발휘할 예정이다.

아남호 총장은 기념사를 통해 "전북은 가금 사육수가 전국 최대 규모이며 센터 설립은 더욱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며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실용화센터, 유치 예정에 있는 네덜란드 가금전문센터 등과 긴밀히 연계해 우리나라 가금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전주비전대,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선정

전주비전대학교가 정부의 특성화 전문대학육성사업 재지원 대학으로 선정됐다.

11일 전주비전대에 따르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2016년 특성화 전문대학육성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확정·발표한 가운데 재지원 대학에 선정됐다.

비전대는 지난 2014년 SCK사업에

선정된 뒤, 지금까지 60억8400만원의 재정을 지원받았고, 계속지원 대상 대학으로 선정돼 오는 2018년까지 추가 예산을 지원받게 됐다.

SCK사업은 사회·산업수요에 기반한 특성화로 전문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과 산업 맞춤형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박용주 기자

2016. 5. 13 - 5. 16 VISIT NAMWON CHUNHYANG FESTIVAL

춘향남원 사랑의민예

추석

사랑한다면 을추자!

사랑춤 플래시몹 대작전

5. 14 ~ 5. 15 / 차 없는 거리에서 / 누구나 / 사랑춤을 덩실덩실 추어보세 ~ 춘향! 꺼지지 않는 사랑

제86회 춘향제

추최 | 남원시 | 춘향문화선양회 | 주관 | 제86회 춘향제추진위원회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관광공사 | 전라북도 | 국립무형유산원 | 재외남원향우회